

# 新 여성

의식을 깨우던 변화의 바람과 함께 온

지금은 청계천 재개발이 진행되어 사라져 가지만 필자가 한참 수집으로 돌아다닐 때인 1988년 전후로는 청계천 노점가 일대는 나의 황금벌판이었다. 지천에 깔려있는 보물(?)을 그저 주워 담기만 하면 되었던 시절이었다.

저우 눈이 밝았다고 자부하는 이가 카페나 다방의 디스플레이 용도의 물건을 찾을 정도였지 필자같이 '생활자료'를 찾는 이는 전무 했었다.

어느 농촌 부업에서 나온건지 모를 이 가방은 노점상주인의 시야에서도 벗어나 시커멓게 때가 낀 유리병(석유담았던 용기)과 함께 구석진 곳에 내팽겨쳐 있었다.

“보소? 저 구석에 핸드백 비슷한 거 얼마요?”

“아이구. 그 양반 눈도 좋제... 그거 끈 한쪽은 날아가고 없소.  
그러니까 그것 알고 사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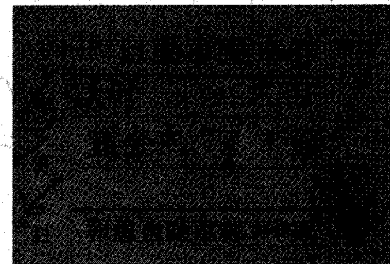
특이하게 생긴 이 가방은 무슨 용도인지 모른 채 오랫동안 내 창고에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1938년 '여성'이란 잡지의 삽화에서 '버스걸'이 허리에 차고 있는 이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조선간호부회 (1923년 4월 창립)



버스 (1930년대 20인승 버스)



버스표 (1930년대 옥천-대전) 실물

1930년대 근대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문화인 '도시문화'를 향유하는 인간군들이 등장하는데 당시 기성세대가 '못앤 걸' '못앤보이'라 칭했던 모던걸(Modern girl), 모던보이(Modern boy)가 그들이었다. 이들의 의식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옛 모습으로 당시 '모던걸'의 직업을 살펴보면 다수를 차지했던 기생류(카페걸을 포함), 연예인과 지식계층 특수직종(당시 선망의 대상?)에는 '버스걸', '티켓걸(극장), 가이드 걸(백화점)등이 있었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 나라 '민족사' 뿐 아니라 '여성사'에서도 큰 사건이었다. 이전 남성중심의 봉건사회에서 숨죽여 있었던 여성들의 의식이 이로 인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여성의 사회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23년 4월 한국최초의 여성노동단체인 '조선간호부회'가 만들어지고 이듬해 '원산 여자노동회'와 '인천선미여공조합(정미공장여공모임)'이 결성되었고 그 조합원수도 3천여 명이 될 정도로 여성들의 호응이 컸다.

이러한 시기에 여성의 사회참여 현상을 신문이 자주 기사화 함으로써 이슈화 하였고 당시 유행했던 '강연회'도 연사 중에 여성 한, 둘을 끼워 넣어야 성공할 수 있었다. 당시 여성 명사가 주로 다루었던 논제는 '조혼문제'와 '남녀차별'이었다. 또한, 일본대기업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식민지 이식공업화'가 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공업생산지인 도시가 '근대도시화'되면서 이전 농촌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직업인인 회사원, 공원, 관공리(공무원)등이 도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했다.



당시 버스차장 가방



운송회사 (1937년 울산 자동차 부산 영업소직원 일동)



버스걸 (1938년 여성잡지 삽화)